

##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때는 ㉠ 정묘년 정월 십오 일이라. 온 조정의 신하들이 다 하례할 때에 황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연전(年前)에 짐이 조ungs을 보니 인재가 거룩하고 충효가 거룩하매 본보기가 될 만하니 태자를 위하여 데려다가 짐의 곁에 두고 서동(書童)을 삼아 국사를 익히게 하고자 하나니 경들의 소견은 어떠한가?”

여러 신하가 다 묵묵하되 이두병이 아뢰기를,

“나라의 법이 각별히 엄하오니 벼슬 없는 여염집 아이를 이 유 없이 조정에 둬온 잘못된 줄로 아옵니다.”

황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충효의 인재를 취함이라. 어찌 아무런 이유 없이 취하려 하겠는가.”

두병이 다시 아뢰기를,

“인재를 보려 하시면 장안을 두고 이르더라도 조ungs보다 열 배나 더한 충효의 인재가 백여 인이요, 조ungs 같은 이는 수레에 싣고 말[斗]로 그 양을 헤아릴 정도로 많습니다.”

황제께서 윤허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회답이 없는지라. 승상이 시종대(侍從臺)에 나와 관원들과 의논하여 말하기를,

“이후에 만일 조ungs을 위하여 천거하는 자가 있으면 죄를 받으리라.”

하니, 백관이 누군들 겁내지 아니하리오.

이즈음에 왕 부인과 조ungs이 이 말을 듣고 부인은 못내 두려워하고 웅은 분기등등하더라.

천운이 불행하여 황제께서 우연히 건강이 편하지 않으시더니 ㉡ 열흘이 지나도 조금도 차도가 없고 점점 병이 깊어지니, 나라의 백성들이 다 하늘에 빌어 병이 나아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랐지만 소인배들의 조정이라 회복을 어찌 기대하리오.

㉔ 정묘년 삼월 삼 일에 황제께서 붕어(崩御)하시니 태자의 애통하심과 만인의 곡성이 천지에 사무치고 왕 부인 모자는 더욱 망극하더라. 어느 사이에 국법과 권세가 이두병의 말대로 돌아가니, 백성이 망국의 행동을 일삼고 산중으로 피란하더라.

이때에 관원들이 엄히 예의를 갖추어 ㉕ 사월 사 일에 황제를 서릉(西陵)에 안장하였다.

하루는 관원들이 노소 없이 시종대에 모여 국사를 의논할 때 이두병이 역모에 뜻을 두고 옥새를 도모코자 하니 조정 백관 중에 그 말을 좇지 아니할 사람이 없는지라. ㉖ 시월 십삼 일은 황제의 생일이라. 모든 관원이 종일토록 국사를 의논할 때 이두병이 물어 말하기를,

“이제 태자의 나이는 팔 세라. 국사는 매우 중요한데, 팔 세 태자의 즉위는 일이 매우 위태한지라. 법령이 점점 쇠하고 나라가 위태할 지경이면 그대들은 어찌하려 하느냐?”

여러 신하가 일시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A] “천하는 누구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며, 조정은 십대(十代)의 조정이 아니라. 이제 어찌 팔 세 태자에게 제위를 전하리오. 또한 황제 붕어하실 때 승상과 협정하라 하신 유언이 있었지만 나라에는 두 임금이 없고 백성에게는 두 하늘이 없다 하였으니 어찌 또 다른 왕을 두리이까?” 여러 신하의 말이 모두 한 입에서 나온 듯하더라.

“이제 국사를 폐한 지가 여러 날이라. 앞드려 빌건대 승상은 전일의 과업을 전수하여 옥새를 받으시고 제위를 이으셔서, 조정과 민간의 모든 사람이 실망하며 탄식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하며, 모든 대소 관원이 일시에 당 아래 땅에 엎드려 사배하니 그 위엄이 서릿발 같은지라.

[중략 줄거리] 조웅은 송나라를 떠난 후 여러 도사를 만나 무예를 닦고 힘을 기른다. 이후, 조웅은 의병 대원수가 되어 이두병의 군사를 무찌르고, 이두병에게 항복하라는 격서를 보낸 뒤 그를 찾아간다.

이때에 황성 백성들이 조 원수가 온단 말을 듣고 즐겨하여 마중 나오니 그 수를 가히 세지 못할지라. 또 이두병을 잡아 온다는 말을 듣고 장안의 백성들이 노소 없이 다 즐겨 말하기를,

“극악한 이두병이 형세만 믿고 자칭 천자라 하여 천지가 무궁하기를 바라더니 일시를 보존하지 못하고 어이 그리 단명하는고? 하늘이 통찰하여 네 죄를 아시고, 무지한 백성들도 네 욕신을 원하거나 착하고 빛나도다. 일월 같은 조 원수를 보니 도탄 중에 든 백성들이 단비를 만나도다. 사방으로 흩어진 충신들도 소식을 알았던가. 백발 노소 장안 백성들이, 구경 가자스라!”

하고 무수한 백성들이 다투어 구경하더라.

원수가 팔십만 대병을 몰아 황성을 짓쳐 들어오니 황성 백성들이 남녀노소 없이 길을 막고 나와 원수께 치하하며 말하기를, “장하고 장하도다. 어디를 가셨다가 이제야 오십니까? 천우 신조로 대송이 회복되도다.”

하고 무수히 하례하거늘 원수가 위로하기를,

“살아서 너희를 다시 보니 반갑기 헤아릴 수 없도다.”

하시며 행군을 재촉하여 수일 만에 황자강에 이르니 강산 풍경이 예와 같은지라. 문득 옛일을 생각하니 슬픈 생각을 금하지 못하고 사공을 재촉하여 강을 건넜더니 황성관 어귀에 조정 백관이 이두병과 이관 등을 수레 위에 높이 싣고 원수의 군행을 기다리다가 원수가 오심을 보고 나아 와 땅에 엎드려 말하기를,

[B]

“소인 등은 임금을 속였음이라. 죽어 마땅하나 그때를 당하여서 도망치지 못하였고 또 두병의 형세를 당하지 못하여 참여했으나 매일 송 태자를 생각하오니 가슴 속이 막혀 한순간인들 온전하리오. 천행으로 원수가 이리 오신다 하옵에 범죄 불고하고 두병의 부자를 결박하여 바치니 앞드려 바라건대 원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널리 용서해 주소서. 소인들의 잔명을 보전하여 주옵심을 바라나이다.”

하며 애절하거늘 원수가 이두병을 보니 분기충천한지라. 진을 머무르게 하고 군사를 호령하여 두병을 붙잡아 오라 하시니, 군사가 일시에 달려들어 두병을 포승으로 묶어 진중에 꿰리니 원수가 호령하여 말하기를,

“두병아, 네 낫을 들어 나를 보라. 네 죄를 생각하니 죽여도 아깝지 않음이라. 태자를 귀양살이 보내고 사약을 내리니 그 죄가 어떠하며, 또 나를 잡으려고 장졸을 보내어 시절을 요란케 하니 무슨 일이뇨? 사실대로 똑바로 아뢰어라.”

하시니 좌우의 무사가 달려들어 창검으로 찌르며 바빠 아뢰라 하는 소리 천지를 진동하는지라.

이두병이 겨우 진정하여 아뢰되,

“나의 조정의 신하들은 성품이 비길 바 없이 음험하고 흉악한 신하들이라. 죄를 알고 나의 부자를 잡아 이 지경이 되었으니 이제 무슨 말을 하리오. 원수의 처분대로 하라.”

하니 원수가 더욱 크게 성내어 무사를 호령하여 문초하라 하니 무사들이 일시에 소리하고 달려들어 창검으로 찌르니 두병이 견디지 못하더라.

— 작자 미상, 「조웅전(趙雄傳)」—

1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왕 부인은 황제가 죽은 후 태자를 산중으로 피신시켰다.
- ② 관원들은 엄중하게 예의를 갖추어 황제의 장례를 치렀다.
- ③ 황제는 조웅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그를 등용하고자 했다.
- ④ 조웅은 이두병의 죄목을 나열하며 그의 잘못을 심문했다.
- ⑤ 이두병은 어린 태자의 즉위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19. ㉗~㉕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㉗의 사건으로 인해 ㉔ 동안 황제의 신상에 변화가 생긴다.
- ② ㉗과 ㉔ 사이에 대립하던 신하들이 ㉕의 사건을 통해 화합하게 된다.
- ③ ㉗에 황제가 결정을 보류했던 일이 ㉕에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 ④ ㉔ 동안 드러난 백성들의 소망이 ㉕의 사건으로 실현된다.
- ⑤ ㉔의 황제의 죽음 이후, 제위에 대한 논의가 ㉕에 마무리된다.

20.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상대에 대한 원망을, [B]는 상대에 대한 기대를 물음의 방식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② [A]는 다른 이의 조언을 바탕으로, [B]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다.
- ③ [A]는 현재의 상황을 명분으로 들어, [B]는 과거의 상황을 해명하며 자신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도덕적 가치를 내세워 상대의 부당한 처사를 비판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고사를 인용하여 상대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언하고 있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일반적으로 영웅 소설에서 악인은 주인공에게 시련을 가하고 반란을 도모해 권력을 쟁취한다. 악인에게 원한을 갖게 된 주인공은 시련을 극복하며 성장하게 되고 결국 악인의 목숨을 빼앗음으로써 복수를 완성한다. 이 과정에서 악인의 권력에 움츠려 있던 백성들 또한 주인공을 지지하며 악인에게 맞서게 되고, 주인공의 개인적 원한에 대한 복수는 집단의 고통을 해결하고 대의명분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갖게 된다.

- ① ‘조용을 위하여 천거하는 자’는 ‘죄를 받’을 것이라고 위협하는 이두병은 조용의 천거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주인공에게 시련을 가하는 악인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역모에 뜻을 두고 옥새를 도모코자’ 하는 이두병의 모습은 황제가 되려는 야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 정치적 반란을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남녀노소 없이 길을 막고 나와 원수께 치하’하는 모습은 이두병의 통치에 고통을 받던 백성들이 조용의 등장을 반긴다는 점에서 주인공의 행위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이두병과 이관 등을 수레 위에 높이 싣고’ 조용을 기다리는 신하들의 행동은 주인공을 대신해 원한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악인에 대한 개인적 복수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조용이 ‘태자를 귀양살이 보’낸 이두병을 심문하는 행위는 왕권을 찬탈한 이두병을 심판한다는 점에서 대의명분을 실현하여 복수의 정당성을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수길이가 먼저 용모에게 알은체를 했다.

“위디 가나?”

“심심해서 예까지 나와봤구먼.”

용모가 다가가며 대꾸하자 조순만이라도 얼굴을 건으며,

“장보러 나가남?”

하고 물었다.

“아침버텀 장에 가봤자 별 볼일 있간디. 나이타에 지름이나 놓까 허구……”

— 하는데 옆에 있던 아이가 고개를 꾸뻑 하여 여겨보니 느름  
[A] 새 위뜸 고향성이 아들 성문이었다. 아이는 겨드랑이에 장  
— 끼를 물리고 있었다.

“웬 게냐. 나라 잡었데?”

용모가 물었다.

“으만무지루 췌녕쿨 올무를 해 났더니 오늘 아침에 가봉께 모가지가 움혀 죽었더라너먼그려.”

오가 아이 대신 그렇다고 일러주었다.

“잡았으면 앓구 있는 아버지나 묶어 디리지 위디 가지구 가는 겨?”

용모가 나무라는 투로 한 말에 오는,

“학생이가 여적지 못 일어났나 뵈. 위디가 위째서 못 일어난 다냐? 누운 지두 달포 가차이나 될 텐디.”

하며 염려하였고 조는,

“원체 읍는 살림에 약을 먹을라니 되게 쟈는가 뵈. 담뱃값

히게 팔어 오라더랴.”

장끼를 어루만져가며 성문이 말로 대꾸했다.

“좀 들헌지 그저 그 타령인지, 나두 자주 못 들여다봐서……

너 아빠가 팔어 오라더란 말여?”

용모가 성문이더러 물으니 녀석도 그렇다고 대답했다.

“얼마나 나가나?”

조가 묻고,

“누가 팔어 봤으야지.”

오가 고개를 갸웃하는데,

“삼천 원 아래루는 안 팔 거유.”

성문이가 어린 것답지 않게 흰소리를 했다.

“글쎄 말여, 드른 것이긴 해두 그 돈 주구 먹을 사람이 있으  
까……”

용모는 막연하게 중얼거리고 나서 가던 길을 다시 이었는데, 성문이가 졸래졸래 뒤따라오고 있었다.

— 용모가 성문이 손에서 꿩을 넘겨 받아 든 것은 읍내 초  
[B] 입에 들어서기 직전이었다. 그것은 물건을 흥정하기에는 애  
— 가 너무 어리고, 뿐만 아니라 곁에서 말마디나 거들어 다다  
한 푼이라도 더 받아 쥐게 해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용모는 꿩 날갯죽지를 쥐고 앞뒤로 내둘거리며 장꾼들 틈으로 들어갔다. 보자는 사람만 나서면 아무라도 붙들고 흥정하여 웬만하면 얼른 넘겨주고 아이를 일찍 들여보낼 셈이었다. 그는 하던 대로 먼저 어리전에 들렀다. 그날도 돼지 새끼 염소 닭 오리부터 억지로 젓 떼 강아지, 생쥐만 한 고양이 새끼까지 고루 나왔는데, 용모가 그곳을 먼저 찾아간 것은 꿩 임자가 있으리라고 여겨서가 아니라 장에 나오면 으레 거기서부터 둘러보았던 습관으로서였다.

[중략 줄거리] 장터에서 ‘용모’는 꿩을 잡았다는 오해로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용모를 폭행하고, 자신의 추측대로 진술서를 작성한다. 결국 용모는 수렴 금지 조치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다음 차례가 용모였다. 용모는 대답을 하고 일어서면서,

“암만 생각해 봐두 말여, 고연히 덧낼 게 아니라 내가 현 것 이라구 뒤집어쓰는 수밖애 읍졌다.”

내게 컷속말을 하고 나갔다. 그가 움직이자 새삼 점심에 마신 술 냄새가 물씬했다. 판사는 기록을 한눈으로 훑고 나더니, “야생 조류나 야생 동물뿐 아니라 입산 금지와 낙엽 채취를 비롯해서 자연을 보호하자는 것이 우리 모두의 당면 과제라는 것을 알 만한 분이 왜 이런 것 했어요?”

— 판사는 앞서보다 훨씬 부드러운 어조였으나 그만큼 위엄  
[C] 이 서리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용모는 거듭 읍한 뒤에도  
— 잔뜩 지르숙어 가지고 입을 못 열고 있었다.

“꿩이 천연기념물은 아니지만, 비록 참새 한 마리라도 그것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보호하자는 건데, 보호하는 사람 따로 있고 해치는 사람 따로 있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판사가 거듭 나무라서야 용모가 대답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주눅이 들었거나 겁에 질린 음성이 아니었다.

“물런 그렇지유. 그러나 말입니다, 꿩은 말입니다, 과연 현재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두 문제란 말입니다. 보호할 건 보호하야 마땅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실지 농작물을 망치는 해조는 으레 참새만 긴 줄 아시는데 말입니다. 꿩의 피해는 말입니다, 사실 농군에게는 말입니다, 훨씬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참고로 아시라구 말씀드리는 말입니다.”

[D] 용모는 아무것도 꿀릴 게 없다는 투로 원기 있게 말했다. 그것은 술기운 덕도 아닌 것 같았다. 지은 죄 없이 고개 조이고 살아온 사람이 오랜만에 켜보는 기지개와 같은 몸짓으로 믿어야 될 성싶었다.

판사가 고개를 갸웃하고 나서 용모를 쏘아보며 말했다.  
“그래서 꿩은 잡아도 무방하다, 해조를 퇴치했다— 이겁니까?”  
“도끼자루 감으로 나무를 찍을 때는 쥐고 있는 도끼자루를 기준해서 찍는다는 말도 있지만 말입니다, 물론 그건 아닙니다.”  
“뭐가 아니요? 당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등쌀에 야생 동물이 안 남아나니까 보호하자고 하는 것 아니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디유, 제가 뭐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말입니다, 예. 제가 잘못된 것은 제가 벌을 받아야 옳습니다. 예, 받겠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저도 법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괜찮으니까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요?”  
“예, 그러믄유. 여기는 바깥허구 달려서 여러 가지 것을 보호하는 법정이라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는디 말입니다. 동물에 물격이 있으면 저두 인격이 있으니 말입니다, 저두 야생 동물— 아니 그게 아니라, 야생 인간인디 말입니다…… 야생 인격이 물격보다두 거시기허면 말입니다……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E] 나는 용모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물은 부드러운 나 추운 겨울에 얼면 굳어져 부러진대던, 어디서 들은 말이 떠올랐다.

판사가 기록집을 젖혀놓으며 판결했다.  
“피의자가 개전의 정이 전혀 안 보여…… 법정에 출두하는데 술에 취해 가지고 와서 횡설수설하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본보기를 삼아야 해요. 벌금 2만 원—”

— 이문구, 「관촌수필」 —

22.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순만은 성문이 장에 가는 이유를 용모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 ② 용모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성문을 돕겠다고 나서고 있다.
- ③ 오수길은 고학성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성문의 말을 통해 알게 된다.
- ④ 고학성은 아들을 장에 보내 자신의 병을 치료할 약을 사 오도록 한다.
- ⑤ 성문은 조순만의 말을 듣고 거래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게 된다.

23.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용모가 농민으로서의 지난 삶을 반성하는 계기가 된 소재이다.
- ②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용모의 이기적 욕망이 투영된 대상이다.
- ③ 마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용모의 처지를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④ 용모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안겨 주는 사건의 원인이 되는 소재이다.
- ⑤ 흥정의 상대를 찾으려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 대상이다.

24. [A]~[E]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여겨보니’와 ‘성문이었다’를 보면,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다른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B]: ‘해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를 보면,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행동과 관련된 의도를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C]: ‘판사는’과 ‘용모는’으로 시작되는 문장을 보면, 서술자가 다양한 인물의 시선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D]: ‘아닌 것 같았다’와 ‘믿어야 될 성싶었다’를 보면,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발화에 담긴 의미를 추측하여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E]: ‘지켜보다가’와 ‘떠올랐다’를 보면, 작품 속의 서술자가 인물을 관찰하며 떠오른 생각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 다음은 이 작품이 발표된 시기의 신문 기사이다. 이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일보

1974년 △월 △일

### 조수 보호는 됐지만 농가 보호는 어디로

지난 1972년부터 조수 보호 정책에 따라 야생 동물의 전면적인 수렵 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다. 해당 조치 이후 야생 동물 보호라는 목적은 이루었지만, 이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수렵 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강제적 규제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 또한 거세다. 농가 1가구당 월 평균 수입이 3만 원을 웃도는 것을 감안하면 벌금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늘어난 야생 동물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심각한데, □□군의 경우 농작물 생산량이 계획보다 30%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농촌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농민 보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진정도 쏟아지고 있어, 야생 동물을 자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① 조수 보호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이 부족했다는 기사 내용을 보니, 용모는 울무에 잡힌 꿩을 파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겠군.
- ② 야생 동물의 자율적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사 내용을 통해, 판사가 용모에게 자연 보호가 당면 과제임을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겠군.
- ③ 늘어난 야생 동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심각했다는 기사 내용을 통해, 용모가 꿩도 농작물을 해치는 해조이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말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겠군.
- ④ 강제적 규제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셌다는 기사 내용을 통해, 자신도 법의 보호를 받고 싶다고 반발하는 용모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겠군.
- ⑤ 농가 1가구당 월 평균 수입이 3만 원을 웃돌았다는 기사 내용을 보니, 판사가 용모에게 내린 2만 원의 벌금형이 용모의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었겠군.

[26~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십 년 종사 후에 고향으로 도라오니  
산천 의구하되 인사(人事)는 달라졌구나  
아마도 세간의 존멸을 못내 슬허 하노라 <제1수>

산화(山花)는 물의 피고 물세는 산의 운다  
일신이 한가하야 산수간의 누어시니  
세상의 어즈러운 괴별을 나는 몰라 하노라 <제4수>

거문고 빗기 들고 산수를 회롱하니  
청풍은 건듯 불고 명월도 도라온다  
하물며 유신(有信)한 갈매기는 오명 가명 하나니 <제5수>

거문고 흥진(興盡)커던 조대(釣臺)로 내려가니  
도화 뜬 말근 물 뛰노나니 고기로다  
아이야 밋기 다지 마라 취적(取適)\*이나 하오리라 <제7수>  
- 신교, 「귀산음(歸山吟)」 -

\* 취적: 낚시질의 참뜻이 세상 생각을 잊고자 하는 데 있음.

(나)

백수(白首)에 산수 구경 늦은 줄 알지마는  
평생 품은 뜻을 이루고야 말리라 여겨  
병자년 봄에 봄옷을 새로 입고  
죽장망혜(竹杖芒鞋)로 노계 깊은 골에 마침내 찾아오니 [A]  
제일강산(第一江山)이 임자 없이 버려져 있네  
예로부터 은사 처사 많지도 있지마는  
천지가 감춤했다가 나를 주려 남겼도다  
(중략)

하물며 태평 시대에 버려진 몸이 할 일이 아주 없어  
세간명리(世間名利)는 뜬구름 본 듯하고  
아무런 욕심 없이 탈속의 마음만 품고서 [B]  
이내 생애를 산수에 깃들인 채  
길고 긴 봄날에 낚싯대 비껴 쥐고 [C]  
줍두건 배옷으로 낚시터 건너오니  
산의 비 잠깐 개고 햇별이 켜는데  
맑은 바람 더디 오니 고요한 수면이 더욱 밝다  
검은 돌이 다 보이니 고기 수를 세겠노라  
고기도 낮이 익어 놀랄 줄 모르니 [D]  
차마 어찌 낚겠는가

낚시 놓고 배회하며 물결을 굽어보니  
운영천광(雲影天光)\*은 어리어 잠겼는데  
어약우연(魚躍于淵)\*을 구름 위에서 보는구나  
④ 하 문득 놀라 살펴보니 위아래가 뚜렷하다  
한 줄기 동풍에 어찌하여 어부 피리 높이 불어오는가  
적적한 강가에 반갑게도 들리는구나  
지팡이 짚고 바람 쏘며 좌우를 돌아보니  
누대의 맑은 경치 아마도 깨끗하구나 [E]  
물도 하늘 같고 하늘도 물 같으니  
푸른 물과 긴 하늘이 한 빛이 되었거든  
물가에 갈매기는 오는 듯 가는 듯 그칠 줄을 모르네  
- 박인로, 「노계가(蘆溪歌)」 -

\* 운영천광: 구름 그림자와 하늘빛.

\* 어약우연: 물고기가 연못에서 뿜.

(다)

머지않아 숲에는 수런수런 신록(新綠)의 문이 열리리라. 그 때는 나도 숲에 들어가 한 그루 정정한 나무가 되고 싶다. 나무들처럼 새 움을 틔우고 가지를 뻗으면서 연둣빛 물감을 풀어 내고 싶다. 가려 둔 속 뜰을 꽃처럼 열어 보이고 싶다.

허허, 이 봄날이 나를 흔들려고 하네.

귀는 항상 듣던 소리를 즐거워하고 눈은 새로운 것을 보고자 한다는 말은 그럴 법하다. 음악을 듣더라도 귀에 익은 곡만을 즐겨 듣고, 새것을 찾아 눈은 구경거리의 발길을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귀는 좀 보수적이고 눈은 제법 진보적인 셈.

제작년이던가 여름날에 있었던 일이다. 날씨가 화창하여 밀린 빨래를 해치웠었다. 성미가 비교적 급한 나는 빨래를 하더라도 그날로 풀을 먹여 다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찜찜해서 심기가 홀가분하지 않다. 그날도 여름 옷가지를 빨아 다리고 나서 노곤해진 몸으로 마루에 누워 쉬려던 참이었다.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서까래 끝에 열린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모로 돌아누워 산봉우리에 눈을 주었다. 갑자기 산이 달리 보였다. ⑥ 하, 이것 봐라 하고 나는 벌떡 일어나 이번에는 가랑이 사이로 산을 내다보았다. 우리들이 어린 시절 동무들과 어울려 놀이를 하던 그런 모습으로.

그건 새로운 발견이었다. 하늘은 호수가 되고, 산은 호수에 잠긴 그림자가 되었다. 바로 보면 굴곡이 심한 산의 능선이 거꾸로 보나 훨씬 유장하게 보였다. 그리고 숲의 빛깔은 원색이 날날이 분해되어 멀고 가까움이 선명하게 드러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다. 나는 하도 신기해서 일어서서 바로 보다가 다시 거꾸로 보기를 되풀이했다.

이러한 동작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다면 필시 미친 중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는 새로운 사실을 캐낼 수 있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것은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아 버린 대상에서는 새로운 모습을 찾아내기 어렵다. 아무개 하면, 자신의 인식 속에 들어와 이미 굳어 버린 그렇고 그런 존재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견 얼마나 그릇된 오해인가. 사람이나 사물은 끝없이 형성되고 변모하는 것인데.

그러나 보는 각도를 달리함으로써 그 사람이나 사물이 지닌 새로운 면을, 아름다운 비밀을 찾아낼 수 있다. 우리들이 시들하게 생각하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이라 할지라도 선입견에서 벗어나 맑고 따뜻한 ‘열린 눈’으로 바라본다면 시들한 관계의 뜰에 생기가 돌 것이다.

내 눈이 열리면 그 눈으로 보는 세상도 열리는 법이다.

- 법정, 「거꾸로 보기」 -

26.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과거의 삶을 후회하며 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상황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옛 성현의 말을 반복하여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27.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에서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 ② <제4수>에서는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표현한다.
- ③ <제5수>에서는 시적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며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낸다.
- ④ <제7수>에서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상대와의 동질감을 표현한다.
- ⑤ <제7수>에서는 <제5수>에 언급된 대상을 다시 언급하며 화자의 행위가 변화했음을 드러낸다.

28.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평생 품은 뜻’이 의미하는 바를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A]의 ‘봄옷’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C]의 ‘베옷’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대조되고 있다.
- ③ [B]의 ‘산수에 깃들인 채’ 사는 삶의 양상을 [C]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B]의 ‘욕심 없이’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D]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D]의 ‘고기 수’를 셀 정도로 맑은 자연의 이미지가 [E]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29.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자연에서의 한가로운 삶을 형상화한 사대부들의 시가를 일컬어 ‘강호시가’라고 한다. 강호시가에서의 자연은 화자에게 익숙한 곳일 수도, 사람들이 쉽게 찾지 못했던 곳일 수도 있다. 이러한 자연은 화자가 오랜 세월을 거쳐 찾아온 공간으로서, 자신이 바라던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화자에게 만족감을 준다. 화자는 자연 속에서 번잡한 속세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연과 더불어 유유자적한 삶을 향유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① (가)의 자연은 화자가 ‘고향’의 ‘산천’이 ‘의구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화자에게 익숙한 곳으로 볼 수 있군.
- ② (나)의 자연은 ‘임자 없이’ 감춰져 있던 곳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쉽게 찾지 못했던 곳으로 볼 수 있군.
- ③ (가)의 ‘십 년’, (나)의 ‘백수’는 자신이 바라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위해 화자가 노력한 세월로 볼 수 있군.
- ④ (가)의 ‘어즈러운 기별’과 (나)의 ‘뜬구름’에서 화자가 속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군.
- ⑤ (가)의 ‘산수간’에 누워 있는 모습과 (나)의 ‘누대의 맑은 경치’를 바라보는 모습에서 화자가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30.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하늘의 모습을 물에서 보게 된 것에 대한, ㉡는 산의 모습이 평소와 달리 보이는 것에 대한 반응이다.
- ② ㉠는 하늘과 물의 변함없는 모습을 본 것에 대한, ㉡는 선명하게 드러난 산의 모습을 본 것에 대한 반응이다.
- ③ ㉠는 하늘이 물의 모습을 닮아 변해 가는 것에 대한, ㉡는 산이 주변의 모습을 닮아 변해 가는 것에 대한 반응이다.
- ④ ㉠는 하늘과 맞닿은 물이 분리되어 보이는 것에 대한, ㉡는 산과 주변이 조화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반응이다.
- ⑤ ㉠는 하늘과 물이 뒤바뀐 모습을 보게 된 것에 대한, ㉡는 과거와 달라진 현재 산의 모습을 보게 된 것에 대한 반응이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무엇인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을 구속하는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야 한다. 지식은 새로운 것을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되며, 지식을 토대로 무언가를 경험하는 순간 마음은 그것을 기존의 지식으로 해석하고 이름 붙인다. 따라서 지식을 완전히 멈출 때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미지의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식이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지식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 ① ‘팔베개를 하고 누워’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는 것은 지식을 멈추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려는 행동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사람’과 ‘사물’을 ‘일상적’으로 대하는 것은 미지의 것을 경험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겠군.
- ③ 어떤 대상에 대해 ‘아무개 하’는 것은 그 대상을 기존의 지식으로 해석하게 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아름다운 비밀’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지식에 의지하지 않고 대상을 진심으로 이해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시들한 관계’를 ‘열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자세로 볼 수 있겠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짓달에도 날씨가 며칠 푸근하면  
 철없는 개나리는 노란 얼굴 내민다  
 봄이 오면 꽃샘추위 아랑곳없이  
 진달래는 곳곳에 소담스럽게 피어난다  
 피어나는 꽃의 마음을  
 가냘프다고 / 억누를 수 있느냐  
 어두운 땅속으로 뻗어나가는 뿌리의 힘을  
 보이지 않는다고 / 업신여길 수 있느냐  
 땅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하늘로 피어오르는 꿈을  
 드높은 가지 끝에 품은  
 나무처럼 젊은이들도  
 힘차게 위로 솟아오르고  
 ㉠ 조용히 아래로 깊어지며  
 밝고 넓게 퍼져 나가기  
 그러나 행여 잊지 말기를  
 ㉡ 아무리 높다란 나뭇가지 끝에서  
 저 들판 너머를 볼 수 있어도  
 뿌리는 언제나 땅속에 있고 / 지하수가 수액이 되어  
 남모르게 줄기 속을 흐르지 않으면  
 바람결에 멀리 향냄새 풍기는  
 아카시아도 라일락도 / 절대로 피어날 수 없음을

— 김광규, 「나무처럼 젊은이들도」 —

(나)

㉢ 사당역 4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려고  
 에스컬레이터에 실려 올라가서  
 뒤돌아보다 마주친 저 수많은 얼굴들  
 모두 붉은 흙 가면 같다  
 얼마나 많은 불가마들이 저 얼굴들을 구워 냈을까

무표정한 저 얼굴 속 어디에

㉣ 아침마다 두 눈을 번쩍 뜨게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  
 밖에서는 기척도 들리지 않을 이 깊은 땅속을  
 밀물져 가게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

하늘 한구석 별자리마다 쪼그리고 앉아  
 별들을 가마에서 구워 내는 분 계시겠지만  
 그분이 점지하는 운명의 별빛 지상에 내리겠지만  
 물이 쏟아진 듯 물려가는  
 땅속은 너무나 깊어  
 그 별빛 여기까지 닿기나 할는지

수많은 저 사람들 몸속마다에는  
 밖에선 볼 수 없는 뜨거움이 일렁거리나 보다  
 저마다 진흙으로 돌아가려는 몸을 일으켜 세우는  
 불가마 하나씩 깃들어 있나 보다

㉤ 저렇듯 십 년 이십 년 오십 년 얼굴을 구워 내고 있었으니  
 모든 얼굴은 뜨거운 속이 굵는 붉은 흙 가면인가 보다

— 김혜순, 「별을 굽다」 —

3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
- ② 계절적 배경을 묘사하여 대상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 대상이 지닌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대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33.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현실에 대처하는 자세를 드러내어 젊은이들이 힘겨운 현실로 인해 고뇌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② ㉡: 극단적 상황임을 강조하여 현실에 순응하는 삶을 선택해야만 하는 젊은이들의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통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현대인의 노력을 그려내고 있다.
- ④ ㉣: 삶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 주어 현대인을 일터로 향하게 만드는 원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얼굴에 빗대어 각자의 일생을 만들어 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는 추운 날씨에도 꽃을 피우며 이상적 세계를 향해 가는 나무의 생명력의 근원이 보이지 않는 땅속의 뿌리에 있음을 보여 주며, 젊은이들도 나무처럼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다. (나)는 일상에 지쳐 살아가는 삶을 극복해 낼 수 있는 현대인의 생명력의 근원이 인간 바깥의 초월적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내부에서 기원한다는 사유를 드러낸다.

- ① (가)의 ‘노란 얼굴’은 겨울임에도 꽃을 피워내는 나무의 모습을, (나)의 ‘무표정한 저 얼굴’은 화자가 지하철역에서 만난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가)의 ‘보이지 않는’은 나무가 꽃을 피우게 하는 생명력이 사라진 상황을, (나)의 ‘볼 수 없는’은 현대인이 현실을 이겨 내게 하는 생명력이 사라진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가)의 ‘하늘’은 나무가 희망을 품고 향해 가는 곳임을, (나)의 ‘땅속’은 현대인이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곳임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가)의 ‘밝고 넓게 퍼져 나가기’는 젊은이들이 나무처럼 꿈을 피워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의 ‘일으켜 세우는’은 현대인이 삶의 의지를 불려일으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가)의 ‘뿌리’는 나무가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게 하는 힘의 근원임을, (나)의 ‘불가마’는 현대인이 일상을 극복하는 힘의 근원임을 보여 주고 있다.